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金 鍾 錫*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辨訂錄』과 改刊本の 간행 |
| II.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 과정 | V. 『陶山及門諸賢錄』의 문제점 |
| III. 『陶山及門諸賢錄』 初刊本の 간행 경과 | VI. 결론 |

I. 서론

퇴계학과 연구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역시 퇴계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이하 본문에서는 『급문록』으로 줄임)이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퇴계학파라는 용어도 묵시적으로 『급문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급문록』은 퇴계학파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급문록』은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급문사실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내용의 적실성과 정확성 등을 둘러싼 시비가 간행 직후부터 끊이지 않았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나아가 문인록 형식의 자료 자체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급문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급문록』의 간행 과정과 정확한 시기조차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문헌학적 고증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퇴계학파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급문록』을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작업은 퇴계학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초고라 할 수 있는 이른바 四家本을 집성하여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상임연구원

『급문록』 초간본을 간행하는 과정,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간본을 간행하기까지의 과정과 개정된 내용, 그리고 『급문록』에 내포된 문제점 등을 『及門錄 營刊時日記』 및 『陶山及門諸賢錄辨訂』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둘 것은,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퇴계학과 연구를 위한 하나의 선행 연구로서 『급문록』의 형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퇴계학맥의 전개와 학통제자의 범주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급문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그 간행과 관련된 시비를 재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II.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 과정

『급문록』은 네 사람이 시차를 두고 작성한 초고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그 네 사람은 葛庵 李玄逸의 제자 權斗經과 퇴계 후손인 李守淵, 李守恒, 李野淳이다. 이들이 초고를 정리하여 『급문록』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凡例」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퇴계문인록 작성에 처음 착수한 사람은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었다. 그는 퇴계연행록을 정리하면서 얻게 된 급문제자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100여명에 달하는 문인록을 작성하였다.¹⁾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인물에 대한 고증상의 한계였다. 그는 이러한 사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길이 다르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다르다. 드러난 사람은 狀·誌 등 기록된 근거자료가 있지만 洛下와 湖中の 인사들은 멀어서 고증하기 어렵다. 드러난 사람도 이러하거나 하물며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高弟 십수 명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그 행적이나 급문사실을 알지 못하여 흠이 되기 일쑤였다. 나는 이미 선생의 언행 출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通錄을 작성한 바

1) 그 명칭에 대해 『陶山及門諸賢錄』 「凡例」에는 『溪門諸子錄』이라 하였지만, 權斗經 자신이 쓴 跋文 제목은 「及門諸子錄跋」이고, 李裁가 쓴 跋文 제목은 「跋陶山及門諸子錄」으로 서명 표기에 약간 차이가 있다. (『蒼雪齋集』, 卷12. : 『密菴集』, 卷14.)

있는데, 다시 門下諸子の 行적의 대개를 밝혀서 『及門諸子錄』이라 하였다.²⁾

이러한 문제점은 퇴계문인의 거주지가 전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것이다. 권두경은 퇴계로부터 불과 150여년 후의 인물이지만, 그도 급문제현에 관한 완전한 파악 위에서 문인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권두경과는 평생의 道伴이었던 密菴 李栽(1657~1730)도 권두경이 작성한 문인록 초고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朴淳, 曹好益, 金樂春 등을 추가하여 續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퇴계의 6대손인 靑壁 李守淵(1693~1748)에 의해서 였다. 이수연이 먼저 한 작업은 권두경이 작성한 문인록을 다시 고증하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이었다.⁴⁾ 즉 이수연은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는 동시에 60여명의 인사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문인록의 체계를 갖추었고 이름을 『陶山及門諸賢錄』이라 하였다. 또 山後 李守恒(1695~1768)이 다시 10여명을 추가하고, 『言行錄』과 『文集』 가운데서 퇴계의 가르침, 주장, 왕복문자 그리고 문인들의 輓, 祭, 疏 등을 붙였는데, 그 편집 형식은 퇴계가 편찬한 『理學通錄』의 예에 따랐다.

원래 四家本이 있었는데 약간씩 상세하거나 간략하기도 하고 다르거나 같기도 하였지만, 山後本만이 『理學通錄』의 예에 따라 선생의 『言行錄』에 나오는 答問과 『文集』에 있는 書와 詩 그리고 諸賢이 당일에 지은 만사와 제문을 그 아래에 붙였다.⁵⁾

즉 이수향이 추가한 문인의 수는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문인록을 정리

-
- 2) 蓋顯晦路殊, 遠近地分. 其顯者固有狀誌記述之可據, 而洛下湖中, 遠而難徵. 顯者如此, 況其晦者, 以故高第十數公外, 世莫知其迹及門屏, 良爲欠典. 余旣蒐輯先生言行出處, 以爲通錄. 又考門下諸子行治之概, 謂之及門諸子錄. (『蒼雪齋集』, 권12, 「及門諸子錄跋」)
 - 3) 惟朴思庵淳旣師事先生, 見嘗以一條清水之語, 見於其狀中, 則獨不宜見漏. 竊意公未及斷手者, 正在此等處也. ……并芝山曹先生·百忍堂金公樂春事, 爲新增續錄. 此外如有合采入者, 且將隨得續編, 亦公之遺意也. (『密菴集』, 卷14, 「跋陶山及門諸子錄」)
 - 4) 陶山諸子錄前後作者, 詳略各異. 於是遂就而詳之, 使覽者有若夫子在座顏曾後先. (『靑壁集』, 卷3, 「行略」, 季子世胤 撰)
 - 5) 元來四家之本, 差有詳略異同, 而山後本, 獨依理學通錄例, 各以先生言行錄中答問及原集中書與詩, 又以諸賢當日挽祭附其下. (『陶山書院古文書 I』, 「及門錄營刊時日記」,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94. p.166. 5월 7일條)

함에 있어서 『이학통록』의 예를 적용함으로써 훗날 각각의 초고를 집성하여 하나의 문인록으로 만들 때 편집 기준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 후 퇴계의 9대손 廣瀨 李野淳(1755~1831)이 다시 수십 명을 추가함으로써 260여 명이 되었다.

이상을 四家本이라 하는데 1914년(갑인)⁶⁾에 『급문록』 초간본이 간행될 때 기본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갑인본 간행시에도 四家本에 포함되지 않은 40여명을 추가하고 아울러 도산서원에 소장하고 있던 諸賢의 輓詩·祭文을 실었으며 행적에 관해 부족한 부분은 實錄 등에서 채록하여 보충하였다.

이상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凡例」의 내용을 보면 四家本은 각기 선행 초고 작성자가 정리해 둔 문인록에 새로 발굴된 문인 명단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정도에 그친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실제로 四家本은 각기 독자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四家本을 취합하여 하나의 문인록으로 집성하는 일은 당연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이 일은 최종적으로 간행될 퇴계문인록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의 확인이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현재로서 이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요긴한 자료가 바로 『及門錄營刊時日記』이다. 이는 도산서원 光明室에 고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자료로서, 『급문록』 초고의 교감과 정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퇴계문인록의 성립 과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자료 뿐만 아니라 광명실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타 관련 자료, 특히 四家本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

6) 필자는 『급문록』, 『급문록영간시일기』……등에 등장하는 ‘계축년’, ‘갑인년’, ‘병진년’이란 간지에 대해 과거에 각각 1853, 1854, 1856년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자의 범위”, 『韓國의 哲學』, 제26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8. 12. ;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5. 19.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그러나 이 연대는 자료를 소홀하게 분석한 결과로서 오류였음을 밝힌다. 그것은 각각 1913, 1914, 1916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급문록』 간행과 관련된 국내의 거의 모든 자료가 이 잘못된 연도로 소개되고 있음도 밝힌다.

7) 陶山及門諸賢錄, 始有蒼雪先生權公所纂輯, 而又有本家諸賢, 青壁公, 山後齋, 廣瀨翁, 修輯各本, 藏在巾笥. 爲斯文未遑之事者久矣, 先父老尋常爲嘆. (같은 글) 및 앞의 註 5번 내용 참조.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마침 단국대 퇴계학연구소에서 그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여 간행한 자료 중에 위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Ⅲ. 『陶山及門諸賢錄』 初刊本の 간행 경과

『及門錄營刊時日記』는 『금문록』 초간본이 간행되기 전 해인 1913(계축)년 4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간행사업의 발의에서부터 교감 과정, 이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활동, 그리고 이 작업과 관련된 금문제자 후손들의 동향 등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고 있다. 『일기』는 우선 『금문록』 간행의 발의 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도산금문제현록』은 처음 창설선생 권공이 편찬한 바 있는데, 다시 본가의 제현인 청벽공·산후공·광뢰옹이 각기 한 본씩 엮은 것이 있어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으니 (취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일은) 사문의 시급한 사업이 된 지가 오랜지라 어른들이 언제나 탄식하여 왔다. 이에 연전에 李中植이 四家本을 취합하여 1冊으로 만들어 간행할 계획을 세웠다. 계축년(1913) 정월에 迂川의 李運淵(간재 후손)이 와서 제자록을 간행하는 일에 관해, 자기 고을에서 말아서 간행할 뜻이 있음을 말하였다. 李中洙가 힐난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비록 시급한 일이지는 하나 다른 고을에서 함부로 간행할 일이 아니다. 운운” 하였다. 李運淵은 개탄하면서 돌아갔다. 李忠鎬가 李麟鎬·李斗鎬에게 “이웃 고을에서 이미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니 일이 마땅히 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發論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⁸⁾

8) 陶山及門諸賢錄, 始有蒼雪先生權公所纂輯, 而又有本家諸賢, 青壁公, 山後齋, 廣瀨翁, 修輯各本, 藏在巾笥, 爲斯文未遑之事者久矣, 先父老尋常爲嘆. 迺於年前, 李中植哀聚四家本爲一冊, 圖所以鉸行計矣. 癸丑正月日, 迂川李運淵(良齋後承)來說諸子錄刊行事, 自其鄉有擔刊之意. 李中洙難之曰, 是雖未遑底事, 似非外鄉所擅刊云云, 李運淵慨嘆而去. 李忠鎬言于李麟鎬·李斗鎬曰, 自隣鄉既發此論, 則事屬當刊, 及此發論如何, 僉曰甚善. (上同)

이 예문을 통하여 四家本을 교감하여 하나의 문인록을 간행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1913년이었으며, 그러한 시도 자체는 그 전에도 퇴계 후손인 李中植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그해(1913) 4월 17일에 종손인 李忠鎬(1872~1951)가 도산서원 首席인 李中喆에게 간행을 위한 文會를 발의하였고, 4월 20일 隴雲精舍에서 文會가 열렸다.⁹⁾ 그러나 이 날은 성원 미달로 산회되고 다시 24일에 모여서 비로소 소임을 분담하고 급문제현의 後承家에 通文을 발송하였다. 이 날 참여한 인사들이 『급문록』 간행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면면과 분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¹⁰⁾

〈陶山諸子錄刊役時爬錄〉

都都監	金基洛(幼學)
都監	李昺淵(幼學), 李中赫, 李燦和, 朴來鳳, 李晚鳳, 李中旭, 李中祐, 李晚始.
校正都監	李進和, 李晚燿(前校理), 李中植(前參奉), 李中轍, 李中協(幼學), 琴岱基, 李康鎬(進士), 金輝璫(幼學), 金魯憲, 李善求.
校正有司	李中均(進士), 李秉鎬(幼學).
寫本	李裕容(幼學), 金夏鎭, 李智淵, 金東植, 趙炳昱, 李中器.
板校都監	吳建永, 李中鐸, 李中實, 李晚璟, 李中參, 李學鎬.
監刻都監	金浩根, 權大永, 李中穀, 李中定, 李中遠, 李尙鎬.
監印都監	李中洙, 金魯博, 李中夔, 朴章煥, 金璣燦, 李義燦.
都辦	李春九, 李中奕, 李中燮, 李麟鎬, 李植淵(前參奉), 李斗鎬(幼學).
時到	李源求, 李中燮, 李用鎬, 李濬淵, 李晚佐(前參奉), 李源甲(幼學), 李炳轍, 李義震, 琴建基, 李源鳳.
直日	琴鏞夏, 李中業, 李中聃, 李述鎬, 李炳朝, 李中熾, 李胤鎬, 李中基, 李性鎬.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인록 초고의 교감에 들어간 것은 5월 6일부터였으며, 6월 13일까지 계속되었다. 위의 「爬錄」에 따르면, 교감 작업을 주로 담당한 사

9) 이 모임에는 李忠鎬 외에 서원 측에서 李中喆(首席), 李義運·李用鎬(齋席), 李晚鳳(原任), 李中植(參奉), 기타 會員 20餘人이 참석하였다. (『及門錄營刊時日記』, 4월 17일條)

10) 『陶山書院古文書Ⅱ』(서울: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7), pp.229~232.

람으로는 교정도감인 李進和, 李晚燿, 李中植, 李中轍, 李中協, 琴岱基, 李康鎬, 金輝璿, 金魯憲, 李善求와 교정유사인 李中均, 李秉鎬였다.¹¹⁾ 특히 李中協은 개인적으로 급문제현의 遺蹟을 抄錄해 두고 있어서 급문사실에 관한 고증 문제가 제기될 때 큰 활약을 하였음을 『일기』는 보여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당초 四家本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초간본을 간행하면서 새로 등재하였다고 하는 40여 명의 문인들(후술하겠지만, 이들은 주로 권5 續錄에 들어 있음)의 명단은 대개 이 李中協의 抄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²⁾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교감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또 급문제현의 후손들의 견해는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문인록 간행을 둘러싼 당시의 분위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의 성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각 지역간의 견해 차이 뿐 아니라 교감을 맡은 실무진 내부에서도 견해가 분분하였음을 보여준다.¹³⁾ 동시에 通文을 받은 諸賢의 後承家에서도 작업기간 동안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와 자료를 보내기도 하였다. 만약 先代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거나 소략할 경우에는 급문사실을 증명하는 편지(及門札)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며, 기술 내용을 두고 장시간 논변을 하기도 하였다.¹⁴⁾

따라서 교감 작업은 초고를 일일이 읽고 논변을 하면서 添書, 改正, 刪去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필요할 경우 光明室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문인의 문집을 가져오게 하여 「행장」이나 「연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지나치게 과장된 표

11) 『일기』에도 李中均, 李善求, 李康鎬, 李中協, 李麟鎬, 李中喆, 李中轍, 琴岱基, 李忠鎬, 李中植, 李斗鎬, 李用鎬, 李性鎬 등이 자주 등장하고 그들이 校正都監이나 校正有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이들이 교감 작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예를 들면 “請李中協所抄錄諸賢遺蹟, 略有攷證. (5월 25일條) ; 僉曰, 諸賢及門, 有或疑案, 則別錄何如. 李中協出私抄, 多有攷據, 抄定別錄. ……李篁谷本無註脚, 而採取李中協抄錄. (6월 12일條)”과 같은 문장에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13) 蓋百年鄭重之舉, 苟欲俟衆難翁一時, 則固無其期也, 薄暮罷會. 時各村議論持重者, 十居七八, 而宗君之意, 愈□□□□求之意, 宗君叔父中寅氏之意, 亦然云. (4월 17일條) ; 李麟鎬, 自浮浦入來言, 浮浦議論, 亦無異同云云. (5월 11일條)

14) 『일기』에는 周村, 汾川, 金溪, 眞寶, 桃木, 沙村, 충청도魯城, 迂川, 浮浦에서 사람이 방문하였고, 鶴峯(金誠一)後孫, 春塘(吳守盈)嗣孫, 柏岩(金功)後承, 高山(申馮)後承, 臨淵齋(裒三益)後孫, 晚翠堂(金士元)後承, 松庵(金沔)後孫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현이나 '문벌이 미미하다.'는 식의 표현은 산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의 소략함을 한탄하였고, 이 교감 결과가 후에 正本이 된다는 생각에 서로 경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적고 있다.¹⁵⁾

교감을 완료한 후 마지막으로 한 일은 『급문록』의 전체 체제를 잡는 것이었는데, 『이학통록』의 예에 따라 趙穆의 「언행총록」과 奇大升의 「묘갈명」 등을 篇首에 세운다는 것 등이 이때 정해졌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는 「凡例」에 정리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주석의 내용은 四家本의 原例에 의거하여 그대로 編印한다.
- 『理學通錄』이 朱門의 諸子錄이라면 이 책은 溪門의 『理學通錄』으로서 전체적인 편집 체제는 『理學通錄』의 例를 따른다.
- 연령순으로 배열한다. 四家本 가운데 蒼雪齋本(權斗經)은 李湛으로부터 시작하고 靑壁本(李守淵)은 鄭之雲으로부터 시작하는데, 鄭之雲이 李湛보다 연상이므로 靑壁本에 따른다.
- 舊本에는 연령순에 어긋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先輩들이 정한 것이므로 고치지 않는다.
- 첫머리에 「序文」을 두는 것이 통례이지만, 선생문집과 언행록 간행시에 「序文」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 예에 따라 序文을 두지 않는다.
- 舊本에는 문인들의 輓詩·祭文 가운데 겨우 3분지 1밖에 入錄되지 않았다. 따라서 빠진 부분을 모두 이번에 入錄한다.
- 성명만 있는 경우도 그대로 실는다.
- 선생의 子姪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舊本에 따른다.
- 사실에 있어서 소략한 경우는 實錄 자료를 채록하여 보충한다.
- 權斗經本의 「跋文」과 李守恒本의 「凡例」가 있었지만 四家本 총합의 취지에 따라 실지 않는다.
- 登門實蹟은 『全書』, 輓·祭·錄, 諸賢의 手墨에서 취한다. 또한 이렇게 하고 나서 포함되지 못한 문인 약간 명은 지금 추가하여 續錄으로 한다.¹⁶⁾

이렇게 해서 완성된 『陶山及門諸賢錄』은 5권2책 혹은 5권4책으로 이듬해인 갑인년(1914)에 간행되었다.¹⁷⁾ 내용은 먼저 凡例, 目錄, 退溪의 「自銘」, 奇大

15) 校勘之際, 皆言, 此校後若正本, 則此校不可泛忽. 相告相戒, 刪之節之, 極務精察. (5월 19일條)

16) 『陶山及門諸賢錄』, 「凡例」.

17) 계명대 한문학연구회에서 영인한 판본이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판

升의 「後敘」, 趙穆의 「言行總錄」을 수록하였으며, 이어서 1권에서 5권까지 모두 309명의 門人에 대한 姓名, 字, 號, 本貫, 居住地, 生年, 退溪와의 관계, 官歷을 비롯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退溪와의 사제관계를 뒷받침하는 書·詩·輓·祭·錄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놓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李野淳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문인록의 등재 인원은 260여명이었으므로 추가된 인원은 약 40명이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교감 과정에서 새로 발굴된 인물들로서 續錄(권5)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상은 『급문록』이 갖는 일반적 특징을 서술한 것이지만 改刊本이 나오기 전에 간행된 판본들 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어느 판본이 초간본인가 하는 것은 서지학적 문제로서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지식 밖에 속한다. 다만 이들 초간본 계열은 나중에 간행된 개간본과는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초간본과 개간본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 줄 뿐만 아니라 개간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陶山及門諸賢錄辨訂』(이하 본문에서는 『변정록』으로 줄임)이다.

IV. 『辨訂錄』과 改刊本의 간행

비록 『급문록』은 간행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초간본을 위한 교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근원적으로 논란의 단서를 내포하고 있었다. 물론 이점은 퇴계 문인록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인록 형태의 자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초간본이 간행되자마자 각지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주로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先代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변정록』은 豊山지역을 중심으로 西厓학맥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비판서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본이 이에 해당한다. 두 가지 판본은 모두 초간본 계열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전부 일치하고 문인표기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卷4의 金允明은 성균관대본에는 金允欽으로 표기됨)가 발견되지만, 개간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용도 체제에서부터 등재된 문인 각각의 급문사실에 관한 고증, 기술 내용, 그리고 오탈자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검토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작업은 한 두 사람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당시 병산서원에 출입하던 유생들의 집단적 참여 하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이 작업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문헌비판 차원을 넘어서 퇴계학통 계승을 둘러싼 계파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屏虎是非'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변정록』은 『급문록』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는 『급문록』의 개간 과정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단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언급이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급문록』의 초간본은 갑인년(1914)에 나왔지만 그 가운데 주석을 잘못 단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변정 작업을 하였는데, 그들은 되는데로 각아내고 보충하여 병진년(1916)에 개정을 하였다. 초간본과는 다르지만 편말에 “甲寅 五月日 陶山書院 刊行”이라고 11글자를 덧붙인 것은 ‘감추고 숨기려는’(掩諱) 의도이다. 따라서 이에 다시 追辨을 덧붙인다.¹⁸⁾

이를 통하여 초간본이 나온 지 2년 후에 개간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급문록』 권5 말미에 “甲寅 五月日 陶山書院 刊行”라고 각인되어 있는 판본이 사실은 병진년(1916)에 간행된 개간본임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초간본과 개간본 사이에는 상당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의 11글자가 덧붙여져 있는 판본에서 거의 이 「追辨」의 지적대로 실제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간을 주도한 사람도 초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¹⁹⁾ 아울러 위의 인용문은 이러한 개간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변정록』이 있었음을

18) 及門錄初刊在甲寅, 而錄中註誤處多. 故自此爲辨訂之舉, 則彼乃隨手刪補, 改定於丙辰. 與初本不同, 而篇末添書甲寅五月日陶山書院刊行十一字, 欲爲掩諱之計, 故茲復追辨於後. (『辨訂錄』, 『陶山及門錄改刊後追辨』)

19) 일제시대인 1922년(大正11)에도 도산서원에서 『급문록』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도 문제의 이 11글자의 문구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 겸 발행자가 李忠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改刊을 주도한 사람도 初刊 때와 거의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정록』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개간본을 간행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 언급이 참고가 된다.

그 (개간본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辨訂에 나오는 語句를 표절하여 임시로 껴매고 덮어 가리려는 (彌縫掩覆) 계책으로 삼은 데 불과하다. 옛사람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됨이 이와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追改할 때 참고하여 고치고 또 고쳐 변경할 것이 없다면 사문을 위해 다행이 아니겠는가?20)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개간본이 나오기 전에 『변정록』이 있었다는 얘기가 다. 그러나 이 개간본 이전의 『변정록』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는지 필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필자가 참고한 『변정록』은 개간본이 나온 병진년(1916) 이후에 간행된 5권 2책의 목판본이다.21)

현재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변정록』을 보면, 표지서명 즉 外題는 『辨訂錄』, 『諸賢錄』, 『及門錄辨訂』 등으로 다양하지만, 서명의 기준이 되는 卷首에는 『陶山及門諸賢錄辨訂』으로 되어 있고, 版心에는 『陶山及門錄辨訂』으로 되어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체 5권 가운데 제1권의 卷首에는 유독 『陶山及門諸賢錄』으로 되어 있어 불완전한 면이 있고, 필사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22)

20) 細攷其節次, 則不過剽竊我辨訂中句語, 以爲彌縫掩覆之計. 古人所謂辭之不可以已者, 有如是耶. 若使追改之際, 參互攷證, 改之又改, 將無事於辨訂, 則寧不爲斯文之幸. (『辨訂錄』, 『陶山及門錄改刊後追辨』)

21) 영남대 도서관 미산문고 소장본이다. 이 판본의 표지서명은 『辨訂錄』이며 『陶山及門錄改刊後追辨』이 있으므로 빨라도 병진년(1916)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후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변정록』을 보게 되었는데, 표지서명이 『及門錄辨訂』으로 영남대본과 다른 점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계명대본에는 '大正8年(1919) 屏山書院刊行'이라는 서지사항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변정록』이 병산서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연대를 분명하게 기록으로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2) 경북대 도서관 연중당문고 소장본 『陶山及門諸賢錄辨訂』이 있는데,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도서등록인이 찍혀 있으며 필사본을 영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篇首에 있는 『陶山及門諸賢錄辨訂凡例』 등 다른 부분은 영남대본과 같지만 권5 말미의 『陶山及門錄改刊後追辨』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

『변정록』의 체제는 『급문록』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문제가 되는 부분에 '辨' 혹은 '謹按'이란 표시와 함께 註를 달아 놓았으며, 篇首에는 「陶山及門諸賢錄辨訂凡例」가 있고 篇末에는 「陶山及門錄改刊後追辨」이 있다. 「변정범례」에서는 『변정록』을 간행하게 된 배경과 『급문록』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해 말하고 있고, 「추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문록』의 간행과 관련된 사실과 개간본에서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 그리고 앞으로 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우선 「추변」에 의하면 개간본에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권1 : 「범례」 가운데 “二十”에서의 ‘二’字는 개간본에는 六으로 고쳤다. 「목록」에서 고친 곳은 너무 많아서 다 기술할 수 없다. 「자명·후서」는 개간본에는 「언행총록」 다음에 있다. 「자명·후서」에서의 “陶叟”의 ‘叟’字는 개간본에서는 正字(叟)로 썼다. 「언행총록」은 개간본에는 「자명」 앞에 있다. “完養”의 ‘完’字는 개간본에는 ‘充’字로 되어 있다. “拱壁”의 ‘壁’字는 개간본에는 ‘璧’으로 되어 있다. 靜存齋 李湛에 관한 註에 “其可”의 ‘可’字는 개간본에는 산거되었다. 龜巖 李楨에 관한 註에서 小註 12字는 개간본에서 20字로 추가되었다. 耻齋 洪仁祐에 관한 註에서 “詮揀”의 ‘詮’字가 개간본에서는 ‘銓’으로 바뀌었다.

訥齋 金生溟에 관한 註에서 “司馬” 이하에는 개간본에서 19字가 추가되었고, “磨谷” 다음에는 ‘祠’字가 추가되었다. 詩 一絶이 산거된 대신 작은 동그라미 다음에 13字가 추가되었다. 時雨 洪渾에 관한 註에 “任眞”의 ‘眞’字는 개간본에서 ‘直’字로 바뀌었다. 雪月堂 金富倫에 관한 註에서 “容易”의 ‘易’字가 개간본에서 ‘已’字로 바뀌었다.

• 권2 : 東岡 南彦經에 관한 註에 “此論”의 ‘此’字는 개간본에서는 ‘來’字로 되었다. 默齋 朴士燾에 관한 註에 詩 一絶이 개간본에 추가되었고 小註 39字가 산거되었다. 松巖 權好文에 관한 註에 “古人” 다음에 ‘云’字가 추가되었다. 文峯 鄭惟一에 관한 註에 “得非” 다음에 ‘有’字가 추가되었다. “使彼” 다음에 ‘挾’字가 추가되었다. 栗谷 李珥에 관한 註에 “工夫” 다음에 ‘切’字가 추가되었고, “其理”의 ‘其’字는 窮으로 되었으며, “持敬”의 ‘持’字는 산거되었다. 南峯 金弘度에 관한 한 行은 개간본에서는 제2권 하편으로부터 (1권 하편으로) 옮겨 왔다.

• 권3 : 波谷 李誠中에 관한 註에 挽詩 한 수가 새로 추가되었고, 본래 있던 두 수의 挽詩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蘆雲 李福弘에 관한 註에 “工曹參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식으로 판각하기 이전에 있었던 필사본일 수도 있다.

議가 工議로 바뀌었다. 良齋 李德弘에 관한 註에 “推之”의 ‘之’字는 ‘而’字로 바뀌었고, “仰笑”의 ‘仰’字는 ‘迎’으로 바뀌었다. 壺峯 宋言慎에 관한 註에 “實爲” 다음의 ‘虛’字는 疏로 바뀌었다. 丹厓 李敬中에 관한 註에 “東儒”의 ‘東’字는 羣으로 바뀌었다. 寒岡 鄭述의 휘인 ‘述’字가 개간본에는 正字로 쓰여졌다.

◦ 권4 : 勿庵 金隆에 관한 註에 “承旨” 다음에 4字가 추가되었다. 翠巖 琴義筍에 관한 註에 “友叔”의 ‘叔’字는 卿으로 바뀌었다. 潛齋 張謹에 관한 註에 “監司社玄孫” 5字가 추가되었다. 魯村 鄭允良에 관한 註에 “五十八”을 六十六으로 고쳤다. 具贊福에 관한 註에 “階通政”을 官部將으로 바꾸었다. 趙容에 관한 註에 “之”字는 산거하고 “文正公” 3字를 넣었다. 重湖 尹卓然에 관한 註에 “漆原人” 다음에 21行을 추가하였다. 金守愚는 산거하고, 靑巒 金允欽을 밑에서 옮겨왔다. 南峯 金弘度에 관한 1行은 제1권 하편의 말미로 옮기고, 金彦瑠를 넣었다. “金允欽” 3字는 산거하고 대신에 “金允明字守愚” 6字를 넣었다. “柳仲章”의 ‘柳’字는 ‘朴’으로 고쳤다.

◦ 권5 : 杏巖 李閔樑에 관한 註에서 “七十一”은 七十四로 고쳤다. 秋月軒 蔡應龍에 관한 註에서 “仁同”의 ‘同’字는 川으로 고쳤다. 下巖 金夢得에 관한 註에서 “得字” 다음에 15字를 추가하였다. 樗軒 朴民獻에 관한 註에 “希正” 2字를 추가하였다. 春軒 徐崦에 관한 註에 “鎮之” 2字를 추가하였다. 守慕 朴頤의 註에 “和叔” 다음에 43字를 추가하고, 또 祭文 6行을 추가하였다. 無患堂 朴大立에 관한 註에 “守伯” 2字를 추가하였다. 裊三近에 관한 註에 “唱和” 다음에 있는 ‘詩’字를 산거하였다. 편말에 “甲寅 五月日 陶山書院 刊行” 11字를 추가하였다.²³⁾

이상에서 말한 내용은 실제로 개간본을 보면 거의 그대로 수정이 되어 있으나, 일부는 현재 우리가 보는 개간본과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자명·후서』는 개간본에서는 「언행총록」 다음에 있다.”거나 “『자명·후서』에서의 ‘窈’字는 개간본에는 正字(叟)로 썼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범례』의 ‘二十’에서 二字는 개간본에서 六으로 고쳤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초간본 계열의 판본에 원래 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간본만 해도 최소 2~3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알지

23) 『辨訂錄』, 「陶山及門諸賢錄改刊後追辨」.

못하는 또다른 초간본이나 개간본 혹은 보각본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개간본에서는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에 대해서 『변정록』은 '표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그 자체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다만 그 고친 곳이 자구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란하다. 金弘度 父子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바로 잡았지만, 그의 형제·옹서·숙질은 여전히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또한 金彦据는 본래 四家本에 없었고 새롭게 얻은 사람인데, 어째서 續錄에 넣지 않고 함부로 原錄에 넣었는가?"²⁴⁾라고 하여 마땅히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변정록』은 그 자체도 어떤 한 계파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은 『금문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위에 인용한 「추변」의 내용 중에도 나타나듯이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표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퇴계 이후 계파간의 갈등이나 문인 선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관점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다만 퇴계문인록에 대한 객관적 이해라는 점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V. 『陶山及門諸賢錄』의 문제점

이미 언급했듯이 과격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변정록』을 도외시킬 수 없는 이유

24) 但其所改之處，乃是字句零瑣之間，至於宏綱大目，依舊紊亂。南峰之父子倒序，雖曰釐正，其他兄弟翁婿叔姪之倫，一從初本之顛錯。……且金公彦据，既不槩於四家之本，實是今得之賢，則何以不在於續錄之例，而囂地添入於鑿空之板乎。(같은 글)

는 그 변정 내용이 『급문록』의 문제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변정록』은 『급문록』이 「범례」에서 내세운 기본적인 편집원칙에 대해 조목별로 비판하였는데,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선생의 후손들이 公議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미완성본인 四家本을 가지고 임의로 버리거나 취하고 함부로 뒤섞어서 사사롭게 간행하였다. 따라서 학문에 나아간 순서나 문하에서 화기애애하게 강론하던 흔적을 제대로 후세에 전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본은 四家本의 원래 기록에 의거 편찬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편찬과정에서 임의로 취하거나 깎아낸 부분이 많아서 이미 원래 기록과는 다르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四家本의 원래 내용과 비교하여 『급문록』의 오류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蒼雪齋本과 靑壁本이다. 이 두 가지 본은 본래 모습에 가깝고 기록한 내용도 번잡하지 않다.
- 이 본은 溪門의 『이학통록』이라 하여 편집체제에 있어서도 『이학통록』의 예를 따른다고 하였지만, 『급문록』에 실린 문인들은 그야말로 급문 제자로서 『이학통록』에 실려 있는 元明代의 재전 삼전제자들과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급문록』을 『이학통록』과 같이 볼 수 없다. 나아가 『급문록』은 노선생의 작위와 시호를 篇首에 세우지 않는 등 실제로 편집 체제에 있어서 『이학통록』의 예를 따르지도 않았다.
- 이 본의 배열은 연치 순서에 따랐고 간혹 뒤바뀐 경우가 있어도 선배들이 정한 것이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하였지만, 연치를 따지면서 賢人の 순서를 따지지 않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에 비추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 순서가 뒤바뀐 것을 선배들이 정했다 해서 손대지 않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에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아버지 보다 앞에 있고 동생이 형보다 앞에 있는 것은 倫常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 본에는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성이나 이름이 바뀐 경우가 그 한 가지이다. 또 선생의 별호인 陶叟의 ‘叟’자를 속자로 쓴다가, 나라의 묘호를 구분하지 않고 聯行直書하거나 벼슬에 관한 ‘除’ 혹은 ‘贈’字의 사용에 있어서 잘못이 많다는 것 등이다.
- 급문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錄·詩·書·輓·祭 등을 실었는데, 이러한 글을 발췌함에 있어서 정작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별로 중요치 않는 글을 자료로 삼았다. 또 잘못 깎아내어 엉뚱한 문맥이 되거나 본래 의미를 버리기도 하였다.
- 『도산급문록』이라면 선생이 중심이 되는데, 이 본에는 ‘公’이라는 칭호를 사사문인과 사숙문인에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 제현의 부형을 소개하면서 그 顯晦와 詳略에 있어서 구분이 없다. 또 관직이나 자호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점이 있다.

- (총괄) 변정 작업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급문록』은 그 중요성이 실로 자별하지만, 예안에서 사사로이 간행한 판본(私刊之本)에는 문제가 많은 까닭에 그대로 후대에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본 가운데 순서가 바뀐 경우와 기재 내용이 빠지거나 소략한 경우, 그리고 뒤섞여 있는 경우를 일일이 가려내어 밝히거나 고치고 보충하였다. 그 내용은 '謹按'이란 두 글자로 구별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취사하게 하였다.²⁵⁾

요컨대, ①퇴계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공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②四家本의 내용을 임의로 취하거나 깎아낸 결과 원래 내용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 ③『이학통록』의 체제를 따른다고 했지만 『이학통록』과 『급문록』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 ④배열 순서에 있어서 합리적인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⑤성이나 이름이 바뀌거나 정자가 아닌 속자를 쓰는 등 교정상의 오류가 많다는 것, ⑥급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각종 글을 발췌함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놓아두고 별로 중요치 않은 글을 자료로 삼았다는 것, ⑦용어나 호칭 사용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급문록』에 등재되어 있는 거의 모든 문인에 대하여 변정을 하였다. '謹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변정 부분은 그 분량으로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에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배열 순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 대표적으로 鄭之雲이 『급문록』의 맨 처음에 올 수 있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문으로 보아도 정지운이 朱門의 蔡西山이나 黃勉齋와 같을 수 없으며, 연치로 보아도 朴雲(퇴계보다 8세 연상)이나 鄭以淸(퇴계보다 3세 연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외에도 金生溟, 徐解 등 序齒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경우를 일일이 지적하여 놓고 있다.

(2) 註의 오류나 典據에 대한 확인이 철저히 못한 경우: 文緯世가 31세에 처음 퇴계를 배알하였는데도 13세에 선생에게 遊門하였다고 한 것이나, 申灑가 출생한 것이 만력 신묘년이라면 1591년이 되는데 어찌하여 급문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나, 洪渾의 登科시기에 관한 오류 등을 지적하였다. 그외에

25) 『辨訂錄』, 「陶山及門諸賢錄辨訂凡例」.

도 이름, 자호 등을 새로 고증한 경우는 수없이 많은데, 특히 권4에 姓만 있는 曹의 경우, 이름을 希章이라고 밝혀 두고 있다.

(3) 編書의 常例에 어긋나는 경우: 金守一은 향년이 56세인데 早卒이라고 한 것이나, 李衍樑은 蒼雪齋本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靑壁本에는 들어 있으므로 이른바 今得之賢은 아닌데도 原錄에 넣지 않고 續錄에 넣은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 '續錄'이란 형식은 原錄이 간행된 후 추가로 새로 편찬하는 경우에 쓰는 말인데 『금문록』에서는 단지 새로 발굴하였다 해서 초간본이 간행되기도 전에 續錄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續錄에 포함된 인물은 "십수 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벼슬아치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며 향리에 은거하는 遺佚인데, 진실로 급문 실적이 있다면 비록 四家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어찌 따로 구분하여 續錄이라 할 수 있는가?"²⁶⁾ 하였다. 續錄에 포함된 사람들은 교감 과정에서 추가된 경우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추가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4) 퇴계문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점에 관해 『변정록』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밝혀 두고 있다. 예를 들면, 松庵 金沔에 대해 "樊巖 蔡濟恭이 쓴 「碑銘」에 '南冥을 스승으로 하고 寒岡을 봉우로 하였다.'고 했으며 (퇴계에게) 급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 本 중에 從先生學이라는 네 글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가?"²⁷⁾라는 식이다. 『변정록』은 이러한 문제점이 四家本의 내용을 임의로 취사한 결과라고 하여 四家本 본래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볼 경우 蒼雪齋本과 靑壁本이 비교적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⁸⁾

26) 試就其錄中, 有如李鷺渚·尹竹窓·尹梧陰·沈巽菴·曹鼎谷·洪拙齋諸公, 俱以一代傑然之才, 或爲清朝蓋臣, 或爲中興碩輔, 當世之倚毘何如, 後來之推重何如, 而餘外十數賢, 亦莫非襟紳之翹楚, 林泉之遺佚也. 苟有及門之實蹟, 縱未及收取於四家之本, 烏可以是爲辭而顯示, 界限之別名之, 以續錄矣乎. (『辨訂錄』, 卷五, 續錄 謹按)

27) 樊巖蔡文肅公濟恭, 撰碑銘曰, 以南冥爲師, 寒岡爲友, 而無一言及及門事者. 然則此本中, 從先生學四字, 攷據於何書耶. (『辨訂錄』, 卷三, 金沔 謹按)

28) 『변정록』은 이 두 本에 공히 등재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靑壁二錄并不載"라고 표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 역시 근원적으로 『변정록』 편찬자의 주관적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면 金誠一 부분에서 「屏銘」의 全文을 실은 데 대한 비판, 柳成龍 부분에서 여강서원에 東配位된 사실을 문제삼고 서애를 퇴계적전으로 해석하려는 관점 등 시종 金誠一의 가운데 西厓 柳成龍의 '정통적 위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²⁹⁾ 등이 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문록』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변정록』의 작성과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는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금문록』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병산서원에는 일기를 비롯한

시해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두 본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두 본에 등재되었던 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이 표시가 없는 인물만 따로 구분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 29) (『금문록』의 趙穆에 관한 註에 正祖 御製 「題先正退溪簡帖後」를 실은 것에 대해) “지금의 군자들은 (정조 임금의 퇴계를) 공경한 뜻을 완전히 숨기고 임금의 글을 공에 관한 註에 편입시켰으니,……임금의 말 가운데 과연 한 마디라도 공에 대해 말한 것이 있는가?” 『변정록』, 권2. 趙穆에 관한 謹按 부분. ; (『금문록』의 金誠一에 관한 註에 「屏銘」 전체를 실은 것에 대해) “이 본을 만든 사람은 오히려 전편을 여기에 편입시켜 마치 이 銘으로 溪門傳受의 旨訣로 삼은 듯이 하였으니 또한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오호! 老선생(퇴계)께서 어찌 道統을 자임하여 제자에게 써 주었겠으며, 학봉은 또한 傳道를 자임하여 노선생께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같은 곳에서 “西厓가 執鞭하기를 求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칭송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執鞭 운운 한 것은 西翁이 이런 칭송을 한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설은 敬堂 張興孝의 문집에서 처음 나온 것이며 老선생도 학봉을 위해 지은 詩에서 ‘내가 執鞭하지 못한 것을 恨한다.’고 한 적이 있으므로, 이런 말은 사우간에 보통으로 하는 칭찬의 말에 불과하다.” 같은 책, 권3, 金誠一에 관한 謹按 부분. ; (『금문록』의 李德弘에 관한 서술 가운데 “서애가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는 표현에 대해) “『서애집』 가운데……「연보」와 「부록」에도 당시 사람의 칭송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지금의 군자들이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 사람들이 (보통) 칭송하던 내용을 大賢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속임이 심하다.” 같은 책, 李德弘에 관한 謹按 부분. ; (廬江書院 배향 시 愚伏 鄭經世가 유생의 문목에 답하여 “文廟의 座次에 따르면 그만이지 어찌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며) “대개 다른 서원과 구별하여 ‘공자가 자리에 앉고 안자와 증자가 제자리를 잡는’ 뜻을 취하여 학문연원의 일대 축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註跋 가운데 마땅히 이러한 사실을 택하여 嫡傳이 (서애에게)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며 거두절미 ‘東配位’ 석 자만을 썼으니, 文莊(정경세의 시호)공의 정론은 가리고 은폐하는 것이 될 뿐이고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얼마인가?” 같은 책, 柳成龍에 관한 謹按 부분.

이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³⁰⁾

다만 풍산지역 유림사회의 동향을 살펴볼 때 나름대로 퇴계문인록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가 바로 謙庵 柳雲龍의 10세손인 柳道禧(1828~1905)가 작성한 『陶山門人錄』이다. 이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李晩寅(1834~1897)이 작성한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사가본 가운데 靑壁本에 바탕을 둔 비교적 간략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³¹⁾ 비록 간략하지만 이러한 편집 방침은 『변정록』에서 蒼雪齋本과 靑壁本이 비교적 믿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던 사실과 통하는 점이 있다. 퇴계 후손인 李晩寅이 서문을 쓰고 “이 문인록이 후학들에게 공을 세운 바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만 해도 양지역 간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서문을 쓴 연도가 1887년이므로 柳道禧는 그 이전에 이미 퇴계문인록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적어도 『변정록』의 내용이 『급문록』이 발간되고 난 후 한 두 해 만에 갑작스레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及門錄營刊時日記』와 『辨訂錄』을 통하여 『급문록』의 집성과 간행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초간本類와 개간本類의 서지적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개간본 간행 이후에 있었던 일부 追錄 부분에 대한 조사 작업이다. 서지학적 문제는 필자가 범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일부 지방에서

30) 현재 생존해 있는 西厓 宗孫인 柳寧夏氏도 과거에 『변정록』 간행을 둘러싸고 陶山과 豊山지역 간에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작업에 참여한 인사 등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

31) 五友豊山柳文用道禧, 甫得靑壁公所編本, 更加節略, 只書生卒官位, 於造詣則取前輩信筆中, 精到簡當者數句語以實之. (李晩寅, 『龍山集』, 卷六, 「柳文用所編陶山門人錄序」)

甲戌追錄이라 하여 몇 사람이 추가되어 있는 판본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 부분은 목판이 아닌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목판본 뒤에 덧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追錄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미진하지만 이상의 고찰을 정리하면, 四家本의 집성과 초간본의 교감 과정에 관한 고찰에서 확인하였고 『변정록』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급문록』은 급문제현에 대한 완전한 파악과 합의의 바탕 위에서 작성된 문인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체제와 편집상의 미비점, 오탈자와 용어·호칭 사용의 문제점, 부적절한 전거자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인 선정과 내용 기술에 있어서 특정 계열이나 학맥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개간본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이를 비판한 『변정록』 역시 다른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문인록 작성을 둘러싼 계파간의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퇴계학과 연구에 있어서 『급문록』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급문록』은 아직도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문인록으로서 누가 『급문록』에 들었고 누구는 들지 않았다는 식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퇴계문인록 뿐 아니라 다른 문인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작된다.

전통사회에서는 간단한 拜謁, 質疑 뿐만 아니라 단순한 往來, 出入, 書質까지도 사제관계의 범주에 넣었으며, 문인록 집필에 있어서는 특히 家門과 宦歷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학통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원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는 309명의 인사들에 대한 개별연구, 『급문록』 자체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그리고 그 간행과 관련하여 당시 안동·예안·풍산 등지의 유럽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원의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사제관계가 아닌 내용상의 학통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나 학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 소개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